

# “설 선물 몸에 좋은 우리 농산물로”



대한상의 내달 1일까지 소비 캠페인  
영암 배·강진 쌀 등 모음집 배포  
상의회관에 홍보관 설치 예약 판매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경제계가 국산 농·식품 소비 확대에 팔을 걷어붙였다.  
20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국산 농식품 소비 확대를 위한 공동 캠페인을 오는 2월 1일까지 펼친다.  
설은 농식품 소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기업들이 국내 농식품 소비 진전에 적극 동참하자는 취지다.  
대한상의는 우선, ‘우수 농식품 모음집’과 홍보 포스터 등을 상의 회원기업과 광주상의를 비롯한 지역 상의 등에 배포해 국내 농식품 구매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우수 농식품 모음집에는 전국 우수 농식품 선물세트가 소개됐으며 영암 기(氣)찬배, 강진 프리미엄호평쌀, 녹색한우, 완도명가 선물세트, 보리굴비, 완도활전복 등 전남지역 40여개 농식품 선물세트도 담겨있다. 상품

들은 홈페이지(www.holidaygift.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18일 상의회관에 ‘우리 농식품 홍보관’을 설치, 농식품 예약판매 행사도 진행했다.  
광주상의 등 지역상의도 국내 농식품 홍보 및 판촉 활동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벌이는 등 관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한상의는 농식품부와 지난 2014년 꾸려진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를 통해 기업과 농업의 협력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펼치고 있다.  
추진본부는 올해도 농업·농촌의 가치를 활용한 공유가치 창출 활동, 중소 농식품 기업의 생산성 혁신 지원,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 문화 확산과 연계한 농촌 지역 관광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나주 배 호주 간다

화상병 발생 후 4년만에 수출 재개

올해도 나주 배의 호주 수출이 이뤄지게 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올해 나주배 비릇, 상주·하동 등 3개 지역 배를 호주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호주에 배를 수출했지만, 2015년 화상병이 발생해 수출이 중단됐다. 정부는 이후 화상병 발생·방제 상황을 토대로 매년 호주 정부와 수출 재개 여부를 협의해왔다.  
검역본부는 “지난해에도 천안·안성 등지에서 화상병이 발생해 호주 수출이 전면 중단됐지만, 비 발생 지역에서 생산한 국산 배를 호주에 수출할 수 있도록 꾸준히 협상을 벌여 수출길을 터 왔다”고 설명했다.  
올해 나주 수출단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화상병 무발생 지역산’ 증명을 요건으로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올 쌀 재배면적 5만5천ha 감축

생산조정제 계획 확정 전년비 5000ha 늘어... 희망농가 6월 28일까지 신청

정부가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한 생산조정제를 통해 올해 재배면적 5만5000ha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발작물의 자급률 향상 및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생산조정제)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쌀 생산조정제는 벼 농가가 다른 작물로 전환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사업을 통해 벼 재배면적 5만5000ha를 감축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목표보다 감축 면적이 5000ha 늘어난 것이다.  
사업 대상은 2018년산 쌀 변동작물금 수령 농지와 지난해 쌀 생산조정제 사업 참여 농지 등이다.  
지원 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한 ha당 평균 340만원이다. 다만 품목 간 조정을 통해 콩류와 조식료 등은 지원 단가가 인상됐다.  
대상 품목은 산지폐기 등 수급관리가 필요한 품목(무, 배

추, 고추, 대파 등)을 제외한 1년생·다년생 작물이다.  
희망 농가는 오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농지 소재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 이행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에 올해 12월 중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수급 안정을 위해 논에서 생산되는 콩은 전량 수매하고, 조사료 중 자가 소비 외 판매 물량은 농협 등 수요처와 전량 사전계약·판매하도록 한다.  
지자체와 농협 등 유관기관 및 단체의 사업과 연계한 지원도 추진한다.  
또한 사·도별로 ‘쌀 생산조정 추진단’을 운영해 기술 지원과 종자 확보 등 원활한 타작물 전환을 돕는다.  
농식품부는 “2018년산 쌀값 상승으로 사업 여건이 어렵지만, 농가 참여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올해 쌀값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자체, 유관기관·단체와 협업을 통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협뉴스

## 전남쌀 제주도 공략 작전

농협 전남본부 ‘풍광수도’ 판매 워크숍·마케팅...3월엔 판촉 행사 기획

농협 전남지역본부의 ‘전남쌀 제주도 공략 작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서구식 식습관 확산으로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역 농업인들이 생산한 쌀 소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판촉 전략이다.  
농협 전남본부는 지난 17일부터 3일간 제주도에서 ‘풍광수도’ 판매 확대를 위한 워크숍과 마케팅 활동을 벌였다.  
풍광수도는 1994년 전국 최초로 탄생한 광역(道) 쌀 공동 브랜드로, 바람·햇빛 등 깨끗한 자연환경을 상징한다.

농협 전남본부는 광주전남 미국종합처리장(RPC) 장장 30여명이 참석한 워크숍에서 향후 쌀 수급 및 가격동향에 따른 대책을 모색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신품종인 ‘새청무’와 관련, 전남 쌀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농협RPC 중심 계약재배 및 단일품종 유통에 대해서도 협의체를 통해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또 오는 3월 제주도 소비자들에게 풍광수도를 소개할 수 있는 판촉행사 등을 마련키로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주간 증시 전망

美 섰다운 장기화·경기둔화 우려에  
자금 신흥시장 이동...주가 상승 견인  
미·중 무역협상·북미 회담 상승 호재  
수소경제 활성화 방침에 관련주 관심

국경 장벽 건설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역대 최장기간 연방정부 ‘셧다운’이 지속되고 영국 블랙리스트 불확실성 부각에도, 시장의 우려가 컸던 4분기 기업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하게 발표되고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책과 미·중 무역관계 협회가능성이 긍정적으로 작용해 미국증시는 4주째 상승세가 이어졌다.  
장기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2024년까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제로’(0)로 줄이기 위해 미국산 제품 수입을 약 1조달러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소식과 미국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일부 혹은 전부를 제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실무회담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조만간 고위급회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아직 최종합의까지는 많은 절차와 난관이 있지만 양국이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글로벌 증시 및 국내증시에도 긍정적이라 하겠다. 코스피지수는 필자가 예측대로 2.35% 올라 2124포인트까지 상승했고 코스닥지수도 1.46% 상승해 696포인트로 700선에 근접했다.

코스피지수가 강세를 보인 것은 섰다운 장기화와 미국경기둔화 우려로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며 이머징국가로 자금이동이 이어지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가 이어졌지만 외국인투자자는 한국증시를 사고 있는 ‘패시브’ 자금 성격으로 1월에만 코스피지수 기준으로 1조 4824억을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지난주 초반은 대북관련주가 강세가 이어졌지만 주중반 이후 대통령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 및 울산 미래에너지 전략보고회’에서 참석하여 ‘2030년까지 수소차와 연료전지에서 모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 ‘대통령이 수소차 홍보모델’이라고 밝히며 수소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표명하자 수소총선소 설치 및 수소차 관련주가 급등했다.

최근 대북 및 수소차관련주의 상승을 보며 우리의 목소리가 있다. 지난해 1월 증권시장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것은 가상화폐였다. 직장인 뿐 아니라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수입과 용돈까지 투자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하게 제동을 걸었고 지금은 고점대비 10%이내로 급락하며 큰손실과 함께 관심권에서 떨어졌다.  
증시 격언에 ‘정부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테마주에 투자할 때 정부 정책과 함께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과거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저항 출발부터 잘못된 경우도 있었지만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관련주 범위가 확장되고 상승기간도 길어진다 고 할 수 있다. 지난주 급등으로 수소차관련주는 단기적으로 과열권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책지원이 지속되고 현대차그룹의 투자방향과 일치되고 있어 관심은 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코스피지수도 미·중 무역협상 및 북미 회담 기대감으로 2180선까지 반등을 목표로 지난주와 유사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반등이 약했던 코스닥지수도 제약바이오주의 ‘갭 메꾸기’가 이어지면 반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장이 정치적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면으로 예상과 다른 악재가 출현할 때는 일정부분 현금비중을 확보하는 리스크관리도 필요해보인다.



정계두  
〈우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

홍윤화 | 다영 | 최여진 | 김지영 | 김희정

무작정 풍덩하라

# 워터걸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20분 방송

CHANNEL